

사설

직장법회 살리자

직장법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불모의 포교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 오던 직장법회들이 IMF의 한파에, 그리고 교계의 지원부족 속에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지난호에 보도한 2백27곳의 직장법회 가운데 81곳이 법회를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넓게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직장법회의 위기는 바로 불교 포교의 최첨단이 무너지는 소식이며, 그토록 외쳐왔던 '불교의 사회화'가 단지 소리뿐인 빈 껍데기로 변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직까지는 직장법회가 교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직장법회의 위기를 불교 전체의 위기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안이한 생각이요, 아직도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한 불교계의 사유를 반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포교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나마 있는 포교당들도 직장인, 전문인들에게까지 미치는 높은 수준의 포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실정에서 직장·직능법회야말로 불교를 현실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정에서 지나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다. 또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 일과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보다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얽어지는 인간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직장에서의 생활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들과의 유대가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어찌 될 것인가. 한 개인이 진정한 불자로서 바로 서지 못할 뿐 아니라,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

루어지는 청정한 공동체가 확신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직장법회가 다른 종교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불교의 사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한국불교의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던 직장법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다 하니 이는 바로 현실불교를 버티던 하나의 기둥이 쓰러지는 소리이며, 미래불교 건설의 꿈이 깨어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방지하여서는 안 된다. IMF 한파가 직장법회를 깨뜨리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 안이한 시각이다. 불교가 IMF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일으켜야 하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함을 외친다면, 그러한 일은 당연히 직장법회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직장법회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데는 그 동안 성숙되지 않은 여건 속에서 이념적인 차이에 치우친 법회운영을 해온 직장법회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 불자들이 서로 서로의 울타리가 되는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는 힘찬 움직임을 일으키도록 해야 하며, 직장생활의 모든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장이 되도록 하는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계는 총력을 다하여 직장법회가 이러한 위기를 뚫고 나와 더욱 튼튼한 나무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생활과 불교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은연의 부처님·회사원 부처님·노동자 부처님들이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미래의 이상적인 불교가 바로 직장법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국역경원 '올해 한글대장경 완간' 목표수정

재정부족 사전목록류 24권 추가 99년말 308권 '회향'

사전목록류 24권 추가번역간행을 결정한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이 <한글대장경> 완간을 위한 재정부족에 고심하고 있어, 정부와 교계의 지원이 절실하다. 당초 동국역경원은 올해 말까지 총 2백84권의 한글대장경 간행을 목표로 역경사업을 성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 속에 포함돼 있지만 번역대상에 제외됐던 사전류인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부분과 목록류인 <개원사교목록(開元釋教目錄)> 부분의 번역없이 이미 번역 간행한 한글대장

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교계의 여론에 따라 번역기간을 99년 말까지 연장하고, 2000년 부처님오신날에 회향법회를 거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말까지 24권이 추가 번역돼 총 308권의 <한글대장경>이 간행될 계획이다. 사전목록류 추가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11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경원은 예산 조달을 위해 2일 문화관광부에 99년 국고지원 신청을 하고 3억4천9백만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동국역경원은 추가 번역 간

행에 따른 인력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재정마련에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장경 역경사업은 국고지원을 비롯 조계종 총무원, 보덕학회, 역경후원회 등의 후원금으로 어렵게 이뤄져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총무원의 지원도 60%가 급감한데다 IMF이후 가뜰스나 수요자가 한정돼있는 <한글대장경> 수요율이 반으로 급감해 이리저리 재정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동국역경원은 정부의 국고지원이 성사되면 지속적인 역경

사업 홍보와 종단과 불자들의 지원 등으로 나머지 비용을 마련, 99년 말까지 <한글대장경>을 완간할 계획이다. 불교계 숙원사업으로 지난 64년에 시작된 고려대장경 번역사업은 80년이후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다. 지난 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활기를 되찾아 94년~98년 말까지 국고지원에 힘입어 고려대장경 가운데 경음론 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번역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동국역경원 최철환부장은 "명실상부한 <한글대장경> 완역의 위업을 갖기 위해서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인 고려대장경을 한글화 하는 사업을 위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부와 종도들의 관심과 배려가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ele@buddhopia.com)

고운사 차기주지에 법조스님 재추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는 16일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천자로 현주지 법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법조스님은 정도원스님을 은사로 득도, 58년 사미계를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강원 대학교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조계종 제9대 종회위원 육전사주지등을 역임했다. 법조스님은 "교구의 화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군포교 30년사' 내년초 나온다

군승단 30년기념 11월 세미나 등 추진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오는 11월 군포교 30주년을 맞아 △군포교 활성화 위한 세미나 △기념법회 △군포교 사신전 △(군포교 30년사) 발간 등의 기념사업을 펼친다. 이희용 군승단장은 14일 교계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고, 곧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군포교 30년사> 발간과 관련, 내년 초 발간을 목표로 이미 작성법사(7군단 상사)를 관한위원장으로 선임해 자료수집에 들어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희용 군승단장은 "기념사업을 통해 군승단의 화합을 도모하고 21세기 군포교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진각종-조불련 27일 북경회담

진각종(총리원장) 회장정사(총무부장)와 지현정사(진각복지회 국장)가 27일 북경에서 조불련 관계자를 만나 남북불교교류 모임을 논의할 준비회담을 갖는다. 20일 국제불교연구소 문을 연 이래 첫 대북점촉인 이번 회담에서는 총리원장을 비롯한 진각종 대표단 남북문제와 북한 내 심인당 및 북지관 개설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각종 국제불교연구소는 조불련 책임지도원 류인수씨를 객원연구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중신회 회장직대에 홍옥진씨 선임 회장사퇴 갈등 '수습국면'

내용을 겪었던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회장직무대행에 홍옥진씨(조계사신도회 상임고문)를 선임함으로써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중앙신도회는 14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송재건회장이 사임했으므로 회칙에 의거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인 홍옥진씨에게 회장직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중앙신도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 회칙 제24조에는 '회장 유고시 부회장은 연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옥진 회장직무대행은 "대의 인총회 개최 등 향후 일정은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칙에는 임원 결원시 3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회장을 선출하더라도 임기가 6개월 남짓이어서 회장선출 이전에 회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송재건 회장의 거둬들인 사퇴의사 표명과 직무대행 승계에 대한 적법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도안스님 22일 방북

금강국수공장 현황점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미주본부장 도안스님이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운영 점검과 2차 원로지원을 위해 22일 방북한다.



19일 한국을 거쳐 22일 북경에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도안스님은 금강국수공장을 둘러 지난 5월 가동을 시작한 금강국수

공장의 운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강국수공장 2차 지원분으로 밀가루 60톤(시가 1만5천달러)을 조불련측을 통해 전달한다. 6월15일 조불련측이 제안해 온 '불교지도자 합동법회'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도필선 기자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은 13일 "총무원이 중앙신도회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중앙신도회에서 회칙에 의거해 직무대행자를 정해 조속한 정상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송회장에게 전

본지 182호 2면 종교편향대책위 관련사건이 한중일불교교류위 사건의로 잘못 게재했기에 사과드립니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부처님과의 약속이니 꼭!

구독료를 자동이체 하면 편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란? 구독자의 통장계좌에서 현대불교신문의 통장계좌로 매월 구독료가 자동으로 지불됩니다.
- '구독료 자동이체' 이렇게 좋습니다!
 - ① 직접 은행에 납부하시는 번거로움이 없고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 ② 같은 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 ③ 본사는 매달 구독료 청구 지료를 발송하지 않아,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도 간소화 됩니다.
 - ④ 6개월이상 계속 자동납부를 하시는 독자에게는 사은품으로 대나무젓가락을 증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방법
 - 은행에서 직접 신청
 - 준비물: 통장, 통장인감, 신분증, 해당은행의 신문사 이체 계좌번호
 -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신청서 작성
 - ※정확한 수납한도를 위하여 신청후 꼭 구독료 자동이체 담당자에게 확인전화는 주십시오.
 -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자동이체 현대불교신문사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민은행	245-25-0001-461	평화은행	052-25-0001-512
농협중앙회	053-01-227471	보림은행	002-22-00951-0
한일은행	082-031951-01-201	주목은행	504537-01-000064
신한은행	324-05-012374	외환은행	150-22-01008-2
조흥은행	322-03-003141	기업은행	024-022451-04-012
하나은행	111-216474-00104	상업은행	113-04-106884
재무개발은행	50-01-124050	한미은행	100-51057-249
세일은행	100-20-144861		
서울은행	15508-226910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와 청소년들의 아영장·수련장설립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평 사기』 불사 모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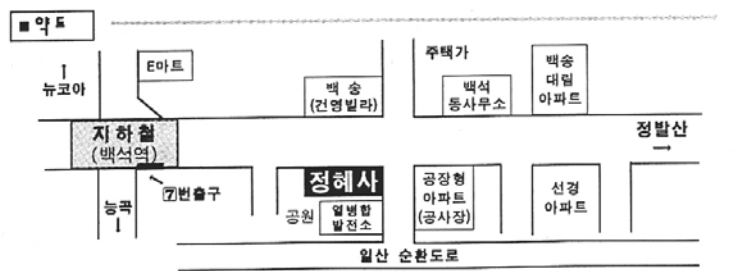
◎ 관 평의 땅이 불국토(佛國土)가 됩니다. ◎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 세우신지 이천오백여년 이 땅에 불법 전래된지. 천이백여년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근기는 나약하여 참됨은 아나 행동하기 어려워 시절을 닦하여 말법이라하고 말세라 합니다. 부처님 법에는 성세가 없으나 인간의 약한 근기가 법은 멀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에 정혜사에서는 부처님 전에 10만 등 밝히는 마음으로 불자와 청소년들의 아영장과 수련장 설립부지 마련을 위한 땅 한 평 사기 불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힘이수련과 수행으로 부처를 이루게 하고 한 평 한 평의 작은 땅이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으로 무상 복전의 복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불사 내용
 - 매입 예상 부지 약 10만평
 - 땅 한 평 등참가격 10,000원
 - 기간 1998 ~ 2,000년까지
 - 외환은행통장 355-13-00166-3 정혜사

♣ 정혜사 법회 일시

구분	시 간	
	매 일	재 일
기도 및 불공	사시 저녁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오 전 10:00 ~ 11:00 오 후 7:00 ~ 8:00 매월 음력 1일 오전 10:00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00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00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00



고양시 일산구 백송동 1230번지 ☎ 0344)907-8900~1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일산 분원 정혜사 주지 정안